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2. 8. 24
해외동향부 (제 6293)

■ **주요 뉴스: 미국 및 유로존 8월 종합 PMI, 전월비 하락 지속. 급격한 경기둔화 우려 증폭**

○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, '16년 1월 이후 최저. 주택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

○ ECB 파네타 이사, 경기침체 위험 등으로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

○ 중국 상무차관, 서비스 부문 국제무역은 여러 도전에 직면

■ **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통화긴축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**
주가 하락[-0.2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상승[+3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잭슨홀 미팅 경계감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4주 만에 최저 수준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주택부문 등 주요 경제지표 부진 등이 원인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3%, 0.5% 상승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통화긴축의 장기화 가능성 등이 반영
독일은 8월 S&P 글로벌 종합 PMI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39.0원, -6.5원) 0.4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8/23일	8/2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28.7	4,138.0	-0.22%
	유럽	431.35	433.17	-0.42%
	중국	3,276.2	3,277.8	-0.05%
	일본	28,453	28,795	-1.19%
	한국	2,435.3	2,462.5	-1.10%
환율	달러지수	108.52	109.05	-0.48%
	유로화	0.9970	0.9943	0.27%
	엔화	136.77	137.48	0.52%
	위안화	6.8350	6.8483	0.19%
	원화	1,345.5	1,339.8	-0.42%

		8/23일	8/22일	전일대비
국채금리 10y	미국	3.05%	3.01%	3bp
	독일	1.32%	1.31%	1bp
CDS 5y	한국	35bp	37bp	-2bp
	중국	73bp	78bp	-5bp
위험지표	EMBI+	-	431	-
	VIX	24.11	23.80	1.30%
원자재	WTI유	93.74	90.23	3.89%
	구리	369.6	365.2	1.20%
	금	1,748.2	1,736.3	0.68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및 유로존 8월 종합 PMI, 전월비 하락 지속. 급격한 경기둔화 우려 증폭

○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S&P 글로벌 종합 PMI가 8월에 미국과 유로존에서 둔화. 미국의 경우 해당 지수가 45.0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'20년 5월 이후 최저. 제조업 부문은 전월에 이어 확장과 위축의 기준인 50을 상회(52.2→51.3). 반면 서비스 부문은 2개월 연속 50을 하회(47.3→44.1)

○ 원자재 부족, 운송 시간 증가, 금리인상,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수요에 부정적 영향. 종합 PMI의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가 48.8을 기록하며 '20년 5월 이후 최저. 다만 투입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도 존재

○ 유로존은 49.2를 나타내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월(49.9) 대비 부진. 제조업 부문은 50을 하회(49.8→49.7)했으나, 서비스 부문은 50을 상회(51.2→50.2). 계속되는 수요부진 등으로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. 에너지 공급 불안 등에 의한 고물가 지속, 중국 경기둔화, ECB의 통화긴축 전환 등이 경기회복 저해 요인으로 거론

○ Barclays는 유로존이 금년 4/4분기와 내년 1/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약한 형태의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, 에너지 공급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망이 과도하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

○ 블룸버그의 David Powell은 최근의 종합 PMI 결과는 유로존이 경기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, ECB는 여전히 시장의 예상대로 9월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, '16년 1월 이후 최저. 주택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

○ 해당 판매는 연환산 기준 51.1만건으로 전월(58.5만건) 및 예상치(57.5만건) 하회. 이번 결과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매입 여력 약화 등에 기인. 다만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(중위값)은 43만9천달러로 전년동월비 8.2% 상승

■ 미국 뉴욕 연은, 인플레이션에서 임금 및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이 확대

○ 임금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, 부문별로는 최근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

■ **Citi, 미국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많은 악재가 존재**

○ Beata Manthey 스트래티지스트는 장기화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, 그 동안의 주가 상승이 과도했다고 진단. 또한 연준은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때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■ **ECB 파네타 이사, 경기침체 위험 등으로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**

○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경기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. 현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,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부연

■ **독일 총리, 캐나다산 가스가 에너지 부족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**

○ 숄츠 총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해 캐나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. 다만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 신규 터미널 건설이 필요한데,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평가

■ **중국 상무차관, 서비스 부문 국제무역은 여러 도전에 직면**

○ 셩 치핑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이동성 제한과 대외수요 감소 등이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고 언급. 또한 수주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

■ **UN,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더욱 악화되는 국면으로 전개**

○ 세계식량계획(WFP)의 아리프 후세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러-우 전쟁, 기후 악화 등으로 글로벌 식품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. 한편 전세계 식량부족 인구는 지난 2년 동안 2배 증가하여 2.76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

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3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: -8, 7월(0), 예상치(-)

○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: -24.9, 7월(-27), 예상치(-28)

■ **주요 경제 이벤트(8/24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7월 내구재 수주, 7월 잠정주택판매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**미국 경제지표의 일관성 부족,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 우려 - 블룸버그**
(The Era of Economic Whiplash Is Just Beginning)

○ 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생산이 감소하는 등 최근 일관된 해석이 어려운 경제지표 발생이 증가. GDP와 GDI(국내총소득) 역시 일반적인 경우 서로 방향성이 일치해야 하지만 1/4분기에는 각각 -1.6%, 1.8%로 다른 모습

○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러-우 전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. 이에 당국은 정책 시행에서 경기 방향성을 정확한 파악이 중요. 한편 최근 서로 상반되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은 연준에게 경기연착륙 시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

■ **유로존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, ECB의 안전망 부재 등에 기인 - Financial Times**
(Investors struggle to trade eurozone debt without ECB safety net)

○ 최근 독일 국채수익률의 변동성은 '11년 이후 최대. 이는 ECB의 9월 0.5%p 금리 인상 전망과 역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가 원인. 독일 중앙은행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10%를 상회할 수 있으며, 이에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

○ 아울러 ECB가 금년 1.7조유로 규모의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(PEPP) 종료 등 주요 금융 안전망의 철회도 변동성 확대의 요인. 이탈리아와 독일 간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격차는 이탈리아의 9월 선거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1개월래 최고 수준

■ **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, 양적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완화에 일조 - WSJ**
(Shrinking Deficits Cushion Fed's Retreat From Markets)

■ **미국 달러화 강세, 통화긴축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내년까지 지속 예상 - 블룸버그**
(It's Foolish to Fight Dollar Dominance as Rally Picks Up Speed)

■ **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수출, 관련 수익 고려 시 영구 중단 가능성은 낮은 편 - WSJ**
(Russia Blackmails Europe, Agai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